

제422회 국회
(임시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28일(금)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2.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

상정된 안건

1.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2
2.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 2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규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1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특위의 활동사항을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이 국회방송과 유튜브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로 구성되었으며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하여 총 60일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기관보고 및 현장조사, 다섯 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하여 늦은 밤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많은 의혹들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으나 윤석열·김용현·여인형·문상호·노상원 등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수차례 발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구인 권한이 없어 끝내 국민 앞에 증인들을 세우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허위 진술에 대하여 위증죄 고발 외에 다른 방안이 없어 국회 자체 능력에 의한 증거 수집이나 진실규명에 제도적 한계가 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비상계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심도 있는 대책까지 논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10시04분)

○위원장 안규백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결과보고서를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주요 활동의 내용과 또 종합 의견, 시정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24일 초안이 작성되어서 수정 보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안)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결과보고서 채택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과보고서의 자구 수정 및 사실관계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안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국정조사를 회피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한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물을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발 대상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들을 고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다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여당 한기호 간사님부터 하십시오.

○한기호 위원 그동안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참여한 문제에 대해서 갈등되는 요소들을 다방면으로 증인들에게 질의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발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실제로 동행명령이 나기 전에 이분들이 전부 다 불출석사유서를 냈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을 발령했고 우리 여당 위원들은 매번 동행명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고발까지 또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바르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지나치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은 현재에 가서 심리를 받고 있고 또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또 여기에 와

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고발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 위증의 문제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포함됐으면 홍장원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홍장원도 메모에 대해서 말 바꾸기를 수차례 했고 전화한 시점도 거짓말을 했고 또 국정원장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실제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홍장원을 포함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김현태를 고발한다면 전 특전사령관 하던 곽종근이도 고발해야 됩니다. 출석할 때마다 말을 바꿔 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실제로 홍장원, 곽종근이를 포함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발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 당 위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규백 한병도 간사님.

○한병도 위원 오늘로서 내란 국조특위가 계획한 모든 조사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두 달간 우리 위원회는 총 다섯 차례의 청문회와 두 차례의 기관보고 또 합참, 결심실 등 주요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내실 있는 활동 끝에 계엄 당시 국회가 실제 단전됐다는 사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가 계엄군에 하달됐다는 사실 등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할 증거와 증언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침으로써 내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기록으로 남아 헌정질서 회복과 유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중요 증인의 출석 거부, 자료제출 미비, 위증 등으로 진상규명 활동이 일부 제약된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윤석열·김용현·여인형·문상호·노상원 등 증인은 청문회에 다수 불출석했을 뿐만 아니고 구치소 현장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현태 707특임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증인은 허위 증언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러한 국정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확실히 고발 조치할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국회의 국정조사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안규백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한병도 간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행해지는 국정조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국민들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발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증인 채택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 채택한 증인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발이 되는 증인들 중의 상당수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형평성이 전혀 없었고 고발 과정에서도 지금 전혀 형평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위증과 관련해서는 한기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 곽종근…… 누가 보더라도 특히 홍장원 차장, 객관적인 다른 증거에 비춰 보더라도 아니면 현재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보더라도 위증임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은 위증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고발에서 전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만 고발을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국민들께서 지켜보신 여러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의결하기 전에 여야 간사께서 고발 명단을 다시 수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규백 추미애 위원님.

○추미애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면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당연히 함께 고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홍장원의 주요 증언 중에 체포명단이 있습니다. 그 메모에 대해서 많이 시비를 거시는데 이 메모는 여인형의 명단과 일치하는 것이고 오히려 여인형은 12월 4일 증거 인멸과 증거 은폐, 증거 조작을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전달받았던 방첩사의 중간 간부들은 증거 인멸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부당하다고. 그리고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검찰의 수사 자료로 압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의 명단과 여인형의 명단은 일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태용의 말은 거짓말이고 오히려 홍장원의 말은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장원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한다면 위증을 주장하시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위원회의 결의에서 홍장원도 함께 위증으로 고발하자 하는 것은 좀 억지 주장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위증으로 고발한다면 거기에 배치되는 특전사령관 곽종근도 함께 고발해야 된다, 또한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곽종근의 양심 증언은 부하들의 증언과 또 당일 대통령의 지시가 스피커폰으로 들렸다고 하면서 그것이 현재에서의 증언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곽종근의 진술은 사실임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현태는 12·3 사태 이후 가장 근접한 시점에 국민들을 향해서 양심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심 고백을 다시 번복하면서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아마 회유도 개입이 됐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함께 고발하자 하는 것도 또한 그 주장하는 쪽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곽종근과 배치되는 김현태의 증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만으로 함께 국회가 고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당리당략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규백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감돼 있고 또 현재에서 심판받고 있고 형사재판받고 있고 온 국민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동행명령장 발부해 가지고 망신 주더니, 그러면 됐지

이제 고발까지 하려고 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수감돼 있는 분들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이 대상자들한테는요, 이게 국회의 권한은 맞아요. 우리가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고 불출석에 따른 고발 조치 국회에서 의결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상자들에게는 큰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신중하고 절제된 사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이요 우리 시작할 때부터 여야 합의로 해 주셨으면 좋는데 여당에서 필요하다는 증인, 참고인들 거의 안 불러 주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여야가 같이 의견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례가 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다수당이 의결하면 다 할 수 있지요. ‘국회법 따라서 하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국회의 관례와 선례, 전통 이런 것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입법권자들의 의사결정을 국회법 안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지켜 온 관례나 선례를 중시해 왔던 거고요. 그 중심은 합의 정신입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국정조사의 결과보고서도 또 우리가 의결하는 내용들도 국민들께서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민주당 의견과 좀 반대되는 입장 가지신 분들을 다 고발 조치하는 건데요. 그러면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불이익당할 수 있다 이걸 보여 주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규백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분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되었을 때의 선례에 비춰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강의구 부속실장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다. 지난번 월요일 날 청문회 때 용혜인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10차 변론기일에서 강의구 부속실장이 12월 5일 계엄선포문을 출력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미 있던 것을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 출력해서 한덕수, 김용현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2 계엄 준비다.

즉 1차 계엄에 대한 부서행위가 아니고 2차 계엄선포문을 출력해서 준비한 2차 계엄 준비 과정으로 보고 좀 더 철저하게 채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마치 1차 계엄에 대한 부서행위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동행명령도 거부했고 불출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만이 아니라 강의구에 대한 고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증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라고 하는 조태용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는 명백백백합니다. 본인 스스로 경찰에 가서 진술한 것을 여기서는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CCTV 시간조차도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헌법재판소의 증언과 명백하게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광종근, 홍장원은 현재에서의 발언과 국조특위에서의 발언이 명백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불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증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추가시켜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총’이라는 말을 들었고 ‘4인 1조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밑의 부하직원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나와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총’ 그다음에 ‘4인 1조로 끌어내라’ 하는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위증 추가가 돼야 된다.

곽종근, 홍장원은 현재와 국회 국조특위에서 일치된 증언을 해 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여당의 입장은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규백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지난 두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사실 증인 불출석과 위증 그리고 형편없는 자료제출로 국정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여러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하게 된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증언하고 국회에는 불출석하거나 국회에서 위증하고, 이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었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 출석의 의무가 없다 이런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요. 사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하에서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불출석사유서를 가지고 우리가 고발 명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해야 한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홍장원 차장과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홍장원 차장의 초기 메모라고 청문회에서 많이 들고나와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예시로 들고나와서 현재에서 설명을 했던 설명 자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그 메모가 진짜인데 그것을 알아볼 수 없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망신당하는 대통령은 안타깝고 망가진 민주주의로 상처받은 국민들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있다고 하면 이진우, 박안수, 곽종근 이 세 장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다 나와서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내란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국회의 선례를 만들어야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내란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 같아서는 육군참모총장과 육본 정책실장처럼 위증으로 하위 직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자들도 저는 다 고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 매우 아쉽고 이후에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도 규명돼야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규백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실제 이번 내란이 얼마나 우리 역사를 퇴행시켰는지가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봤을 때 아마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최악의 지도자는 없었다. 특히 해방 이후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이렇게 진짜 악마 같은 최악의 대통령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만들어 온 민주주의,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 체계를 흔들어 버리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온 국민이 이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이라는 것이 이번에 입증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국정조사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 주는 국민 재판정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지도 않는 거지요.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지요.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너무나 역사를 퇴행시켰고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청년들과 우리 어린이들에게 저렇게 거짓말하는 대통령, 참 너무나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곽종근과 홍장원을 악마화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악마화해서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변호하는 그러한 의원들, 위원들. 저는 이번에 대단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발 정도가 그…… 더 이상 해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된 대통령의 고발, 여기 나온 고발을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규백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이번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있어서 안타깝고 아쉬운 점도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의 기관보고와 다섯 차례의 청문회를 하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단독으로 요구했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4차 청문회 때에는 김현태, 곽종근, 이진우 증인이 여야가 함께 요구를 했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야당에서 증인에서 제외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국조특위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처럼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증인 채택은 두고두고 문제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은 무차별적인 증인 채택입니다. 증인·참고인을 수십 명씩 무더기로 채택했지만 온종일 아무 질문도 받지 못한 증인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아무리 증인이지만 이진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증인에 대한 질문 과정에서 수사 자료가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 온갖 허위사실이 난무했습니다. 군사상 비밀이나 보안이 필요한 증인에 대한 신원도 허술하게 관리된 것이 사실입니다. 비밀이나 보안사항이 누설되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해 특위 활동의 목적과 명분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는 사실은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끝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곽종근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증언 회유 문제는 국정조사 특위 활동 자체에 큰 흠집을 남긴 셈입니다.

○박선원 위원 국정원 CCTV 같이 고발합시다, 임 위원님.

○위원장 안규백 그러면 곽규택 위원님……………

○박선원 위원 국정원 CCTV 같이 고발합시다, 위원님. 어때요?

○임종득 위원 하세요.

○박선원 위원 예?

○임종득 위원 하시라고.

○박선원 위원 아니, 그쪽에서 했으니까……

○임종득 위원 하시라고.

○박선원 위원 그러면 나한테 보내 주십니까?

○위원장 안규백 잠깐만요, 말씀 중이시니까.

○곽규택 위원 박선원 위원님,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안규백 곽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규택 위원 그동안 두 달 동안 이 국정조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 여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름 열심히 했지만 또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다 이런 분도 계시고 반면에 처음 시작할 때 근거 없는 가짜뉴스,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고발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이게 필요한 고발인지, 맞는 방향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불출석했다고 해서 고발을 한다는 이 7명의 경우에 지금 다 구속이 돼 있고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는 그리고 또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도 해야 하는 그런 증인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불출석했다고 해서 동행명령을 남발하다시피 했고 일방적인 표결로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근거로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불출석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정조사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안 나올, 못 나올 증인들을 상대로 출석 종용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결국에는 죄명 하나 덧붙이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마저 좀 듭니다.

그리고 위증 부분 관련해서 여러 명에 대해서 여야 간에 입장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국정조사 회의와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오가면서 스스로 위증을 했다고 거의 자백한 사람이 딱 1명 있어요. 홍장원 전 1차장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 나와 가지고 본인이 한 진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잘못 진술했습니다’ 바로 자백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빼고 위증을 고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규백 마지막으로 민병덕 위원 하십시오.

○민병덕 위원 저희가 아홉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1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국정 감사와 맞먹는 그런 횡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인데 이런 내란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다시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저희 위원들은 매우 불행한 사람들이다, 불우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내란의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졌는지, 설계자가 누구인지, 거기에서 이득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였고 그리고 그 피해가 국민뿐만 아니라 동원됐던 정말 충직했던 군인들과 경찰들과 공무원들도 피해자의 일부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여기는 피해자들을 증인 신청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왜 안 받아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인지

아니면 옹호하기 위한 국정조사인지 목적이 헛갈리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현태에 대해서는 저는, 내란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을 국방위원장이 불러서 어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 사람을 받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정말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 권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증언을 거부하고 불출석하고 위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지 다음 어떤 사건에서도 이것이 선례가 되지 않는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마지막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안규백 예,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지난 12월 31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하고 두 달 동안 저는 여야 가림 없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조특위 첫날 국조특위에 임하는 두 가지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행행하고 있는 거짓·선동 뉴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호도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제가 이 비상계엄에 출동된 군이 많았기 때문에 군 전체의 사기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국가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누구도 옹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헌·위법적인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처음부터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지만 아직 현재와 사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이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위법이라고 단정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한 것 그다음에 그것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국정조사와 사법기관이 이러한 수사를 통해서 출동한 병력들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하되 그 외의 많은 장병들 그다음에 참가하지도 않은 장병들을 2차 계엄 운운하면서 전체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12·3 비상계엄의 원인과 배경, 경과와 진위, 거짓과 진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른 뉴스를 듣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재와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고발과 관련해서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 국방부장관 등 많은 인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판결을 받아서, 올바른 판결을 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굳이 국정조사에서까지 고발을 해서 망신 주기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규백 오늘 이 자리는 5200만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엄중한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무엇보다도 저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점을 추구하고 다른 점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위증과 고발 건에 관련하여 현역의 제복을 입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헌신과 기여 또 사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최소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상징인 국방부 정문 근처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가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한테 이용당했다고 말하는 등 여기서는 이 말 하고 저기서는 저 말 하고 또 수사기관에서 현재에서 국회에서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인가요? 그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시사항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라고 했는데 이것을 담당자가 ‘이것은 삭제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보고서까지 나온 상태고 또 김현태 단장은 윤건영 위원이 텔방이 있냐, 없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텔방은 생산하지 않았다’ 했는데 이미 이 텔방에 본인이 지시한 내용이 나와 있는 이런 명백한 여러 가지 정황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여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곽종근, 홍장원 문제는, 특히 홍장원 국정원 차장과 관련해서는 14명의 리스트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지엽 말단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문제는, 핵심은 14명의,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자의적으로 생산한 내용이 아니고 국정원, 방첩사, 국회 또 경찰 여러 기관에서 동일하게 이 이름이 적시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증의 이런 가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병도 간사님하고 한기호 간사님하고 마지막 절충적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시 50분까지 조정을 좀 해 주시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했다가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양당 간사님들 의견 조율이 됐습니까?

○한병도 위원 치열하게 토론을 해 봤는데요……

○위원장 안규백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한병도 위원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결론은 양당의 생각이 다르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고발할 대상자들을 선정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 조금 전에도 의사진행발언하면서 내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는 내란을 옹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옹호를 합니까? 그리고 옹호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규명하자는 이야기지. 그렇게 상대 당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 5000년 역사까지 다 훑어서 가장 악랄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새 5000년 역사까지 다 훑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유발하게 한 다수당의 의회 폭력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단 한마디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쪽에서 보면 비상사태를 만든 유발 요인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국정조사특위에서도 다수당으로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인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여기 고발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선정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내부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결에 동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제가 발언할게요.

○위원장 안규백 민홍철 위원님.

(일부 위원 퇴장)

이런 모습은 정말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민홍철 위원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6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정조사를 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한계 때문에, 한계는 있었지만 그러나 계획에서부터 음모, 예비 그다음에 실행 단계까지 그 사실관계 내지는 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내란행위에 버금가는 계엄을 했는지를 밝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당에서는 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내란행위에 대한 유발자로서 다수야당을 지금 또 들먹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의 내란 국조특위를 보면서 어느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전히 위헌적인 내란행위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증인은, 청문회라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얘기를 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청문회를 해서 출석을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했음에도 불출석했습니다.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발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증죄로 지금 고발해야 될 국가정보원장이나 경호처장 직무대행, 707특수임무단장 이 세 사람의 위증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지 어떤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 해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해 줘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쉬움은, 제가 이 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게 아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진술을 했고 어떤 내용은 어떻다라는 사실 내용을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보고서에다가 확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사 절차와 또 탄핵소추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질 하나의 보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탄핵소추 심판과 내란

국조가 보완적인 관계에서 조금이나마 진실에 접근했다, 저는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규백 추미애 위원님.

○추미애 위원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내란수괴는 자신에게 닥친 정치적 위기를 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으로 돌파하면서 극단적 자해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은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를 원한다, 진상조사 때문에 이 국정조사에 참여했다라고 말은 하면서 사실상은 더 나아가서……

이 위원회는 증인을 신문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조사권이 없습니다. 자료 요구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진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는데 집단적으로 내란을 옹호하면서 특검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권한대행들은 줄줄이 특검을 재의요구를 하면서 끝내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대법정 최후변론에서 야당 탓만 하다가 끝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을 날조하면서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마치 야당이 국방예산을 삭감해서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저도 국방위 예산심사소위에서 예산안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을 따 놓고도 여러 사업이 전혀 진도가 안 나갔거나 하는 그런 예산들이 여야 합의로 삭감된 바는 있습니다만, 주요 예산을 증액했으면 했지 삭감한 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거짓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것을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국방위에서 저희 야당은 여러 차례 계엄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연성을 높이면서 여당 위원들은 이 김용현 국방장관의 변명, ‘군을 갈라치기 한다’ 큰소리치는 데 같이 합창을 하면서 응원하고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윤석열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명태군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 앞에 거기에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면서 이 정치적 위기를 기화로 영구 집권을 획책하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 실패함으로써 극단적 자해행위, 민주주의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위기를 초래하고 본인의 정치 몰락도 가져온 극단적 자해행위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조했던 세력으로서 성찰과 반성은커녕 끝까지 국정조사를 마무리 짓지 않고 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다는 것은 결코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회의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규백 추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년도 국방예산과 관련해서 경찰기 문제는 이미 정부안으로 삭감해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다음 해에 예산을 태우기 위해서 정부안으로 올라온 것이지 여야 합의도 아닙니다, 그건. 먼저 정부안에서부터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용혜인 위원님.

○**옹혜인 위원** 회의장을 박차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나가셨는데요.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회의록에 명확하게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립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를 오늘 한기호 간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란을 유발했다라고 하시는데요. 맞을 만해서 때렸다, 때릴 만해서 때렸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폭력 가해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집권 여당 소속의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군인들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해자의 논리를 전형적으로 답습하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표결도 못 하고 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갑니까?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고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논리를 윤석열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서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국민의힘 위원님들, 지난 12·3 비상계엄이 계몽령이었던지 아니면 내란이었던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옹호하지 않는다고 오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강선영 위원님 한번 밝혀 보십시오, 이 계엄이 계몽령인지. 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일에 본인은 국회에 있으면서 국회의원들 다 당사로 모았습니까? 지난 이 내란에 대한 특검은 국민의힘 왜 거부했습니까? 왜 탄핵 반대하고 왜 이 국정조사 방해합니까?

이렇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란을 옹호하고 그 자체가 내란 세력이 되어 버린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란 세력 국민의힘을 반드시 회의록에 박제해서 끝까지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규백** 김병주 위원 하시고……

○**박선원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규백** 또 하신다고, 박선원 위원?

○**박선원 위원** 1분만 할 게 있어서요, 사실관계.

○**한병도 위원** 저도 마지막 하나 정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규백** 예.

○**김병주 위원** 국민의힘이 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회의장을 퇴장하는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당이다, 극우정당이다라는 것을 자임하는 꼴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기간에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윤석열 내란수괴의 변호인 역할만 주로 해 왔습니다. 윤석열 변호인 역할을 왜 합니까, 진상조사를 해야지. 그것만이 아니지요. 거기에 덧붙여서 회유설을, 계속 가짜뉴스를 유포했지요. 마치 제가 광종근을 회유했다느니 박선원 위원이 홍장원을 회유했다느니 그것이 괴담이고 그런 거지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이러한 국민의힘의 태도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보수를 포기했습니다. 보수정당으로 명칭이 되어 왔었는데 보수의 가치는 뭘니까?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정질서를 깨뜨리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무너뜨린 윤석열을 옹호하고 대변하고 이런 것은 스스로 보수정당을 포기한 극단정당, 극우정당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 고발 인원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어떻게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야당 위원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힘의 태도로 봤을 때는 내란은 지속되고 있구나,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내란 진압에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규백 박선원 위원님, 1분 하신다고요?

○박선원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규백 여야 합의됐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리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여당의 입장이 다 반영된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규백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조태용 원장이 거짓말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홍장원 1차장이 일관되게 사실을 증언한 내용이 204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에서 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종근 증인이 본 특위에서 한 발언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있는데 이 내용은 그대로 현재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도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태용이 위증을 안 한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홍장원·광종근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자신들이 통과시킨 보고서 자체를 부인하는 자가당착적 내란 옹호행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규백 언제 이 회의 중에도, 이 바쁜 중에도 이걸 다 읽어 봤습니까?

○김병주 위원 천재입니다.

○위원장 안규백 아니, 천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대단하시네요.

한병도 위원.

○한병도 위원 아까 여당 간사께서 좀, 저희들이 기존의 모든 증인들을 일방적으로 다 철회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규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병도 위원 이 증인 관련해서는 항시 협상을 해 왔고요. 실제 대부분의 군인이나 기관증인들은 합의가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증인이 채택 안 된 명단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재명, 김어준 그다음에 법원, 현재, 이게 내란과 대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위원장 안규백 법원을 왜 증인으로 채택하지요?

○한병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지요. 그러니까 이 내란 혐의에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는 데 아무 관련이 없는 오히려 피해자 성격과 현재, 이런 데들은 이번 내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그 증인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말고는 군인들, 기관, 정부 측 관계자들 다 합의해서 했지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꼭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기 10명은 저희들이 대단히 최소화한 겁니다. 이 10명은, 실제 일선에 있었던 일선 군인들은 아예 명단에서 제외하자라고 해서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일부는 대통령실이나 장관들, 이런 사람들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출석을 해서 성실히 했어 이런 사람들도 제외하고 이 10명은 최소화해서 명단을 작성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꼭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규백 알겠습니다.

먼저 인내와 인내를 거듭하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 오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사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자리를 이탈하신 국힘 위원님들께 유감을 표합니다.

이 10명의 숫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불출석과 동행명령에 한 번도 응하지 아니한 사람 당연히 이것은 이유 불문하고 고발 대상이고요. 다음에 무단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지금 고발 대상이 아니잖아요?

○민병덕 위원 이상민 장관이 무단 불출석했는데……

○위원장 안규백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분들은 나오서 가지고 증언을 거부한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출석을 했기 때문에, 다섯 번 출석, 세 번 출석, 한 번이라도 출석한 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문에 부친 내용입니다.

다음에 현역 군인들이, 현직 장성들이 위증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제복 입은 군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기와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해서 한두 명에, 한 명인가요? 불과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유인물과 같이 증인들을 고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의 파도가 대한민국을 벌써 87일째 휘젓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지난 12월 31일 첫발을 떼었습니다. 악전고투를 펼치며 지난 여정을 보낸 60일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두 차례 기관보고, 다섯 차례 청문회,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거치면서 비상계엄 당일은 물론 전후 맥락까지 세밀히 조사했습니다. 내란 가담자들은 거짓과 선동으로 진실을 가리려 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진실은 선명해졌고 거짓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깨어 있는 양심이 행동할 수 있는 발언대였습니다.

내란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내란을 옹호하며 대한민국 헌정과 시스템을 전반 부정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죽지 않고 기세를 이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날 밤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들이닥쳐 헌정을 짓밟았습니다. 5200만 국민은 물론 80억 세계인들이 생중계로 목도했음에도

저들은 여전히 진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진실만이 사실입니다. 참된 사실만이 온전히 진실로 남기 위해서는 오염된 권력의 방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그 동조 세력은 거짓과 선동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음모론, 계몽령이나 경고성 계엄 같은 해괴한 꾀변은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해치고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극물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은 부단한 노력과 국민들의 끊임이 않는 관심이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다음 과제는 더럽혀진 제복의 명예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군인과 경찰은 오직 사명감 하나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이들입니다. 12·3 내란이 남긴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또다시 국민의 군대와 경찰을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다시는 다시는 시민이 권력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이 오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소극적 저항, 양심 선언 등 다양한 형태로 내란을 저지한 참군인과 경찰이 트라우마를 딛고 계속 국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란에 적극 참여, 책임 회피를 위한 진술 번복 그리고 거짓에 거짓을 반복한 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단 1분 1초도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눈앞에서 우롱하고 탐욕에 빠져 내란의 부역과 은폐에 가담한 부역자에 대해서는 국민과 역사가 무관용의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되찾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심야시간에 무도한 권력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켜 낸 것은 국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신 한병도·한기호 간사님과 김성원 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밤낮없이 헌신해 주신 우리 위원님, 언론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실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속기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호기획관실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3 내란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자리하며 사전에 확실히 이걸 알고 또 제대로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일상과 일선 군인과 경찰의 명예를 지켜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정치가 국민을 일상으로, 위로와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선에서 헌신하신 군인과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당당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강선영 곽규택 김병주 민병덕 민홍철 박선원 박준태 백혜련 부승찬 안규백
용혜인 윤건영 임종득 장동혁 주진우 추미애 한기호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